

주간 해외 에너지 정책 동향

Issue 29 / 2007.9.19

□ OPEC, 석유시장 안정을 위해 증산 결정

- OPEC은 안정적인 석유공급과 석유시장의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50만 b/d의 석유를 증산하기로 결정함.
- 9월 11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정기총회에서 올해 11월부터 50만 b/d 증산하는데 합의하였음.
- OPEC의 이러한 증산결정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지역 국가들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짐.
- OPEC의 증산 발표가 있기 전 유가는 뉴욕거래시장에서 배럴당 \$78.32에서 \$77.90로 상승하였는데 동 가격은 \$77.78을 기록한 8월의 기록을 경신하는 최고치임.
- 한편, UAE 에너지부 하밀리 장관의 후임으로 알제리 에너지부 칼릴 장관이 OPEC의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, 차기 의장은 내년 1월부터 OPEC의 수장으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.
- ※ OPEC은 1960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12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음(알제리, 사우디아라비아, UAE, 이라크, 이란, 리비아, 인도네시아, 나이지리아, 베네수엘라, 쿠웨이트, 카타르, 앙골라).

(Asharq al-awsat, 2007.9.11)

NEWS

- OPEC, 석유시장 안정을 위해 증산 결정
- APEC 정상회의에서 온난화대책 논의
- BP, Tanguh LNG 프로젝트 동향
- 일본, IAEA 통해 원자력산업 수출전략 실행
- 외국 석유기업, '07년 볼리비아에 투자 예정
- 스페인 Iberdrola 투자확대
- 루마니아, 에너지 부문에 €350억 투자예정
- EU, 에너지 연계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자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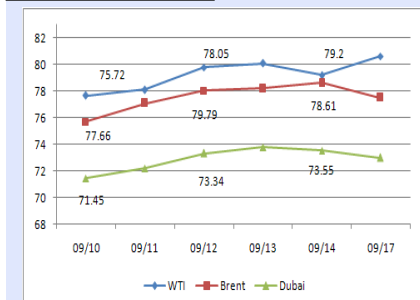
ANALYSIS

- 제 145차 OPEC 총회 결과 및 평가
- OPEC의 증산결정과 고유가 요인 분석
- OECD,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의 문제점 지적

REPORT

- Energy Use In the New Millennium - Trends In IEA Countries
- 미국 단기 에너지 수급전망(9월호)

Oil Prices (Spot)



자료 : 한국석유공사



ASIA & AMERICA

□ APEC 정상회의에서 온난화대책 논의

- 8일 개막된 APEC 정상회의에서 지구온난화 문제가 처음으로 주요 의제로 논의됨.
 - 정상회의에서 역내 에너지효율 개선과 삼림확대 목표를 포함한 특별성명 '시드니선언'이 채택됨.
 - 미국과 중국, 일본 정상이 대책의 중요성을 호소하고 온실가스 배출 삭감에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봄.
- 공동성명에는 역내 에너지효율을 '30년까지 '05년 대비 25%이상으로 향상시키고 삼림면적을 '20년까지 2,000만 헥타르 이상 확대시킨다는 내용이 명기됨.
 - 동 선언은 구속력은 없으나 미국과 중국이 포함된 국제합의로서 포스트-교토 체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.
 - 포스트-교토 체제에 대해 참가국은 상이한 국내정세와 유연하고 다각적인 대응 등을 내용으로 한 7원칙에 합의함.
- 이번 회의에서 온실가스의 구체적인 삭감목표의 설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발도상국과 합의의 어려움이 부각되었음.

(朝日新聞, 2007.9.8)

□ BP, Tangguh LNG 프로젝트 동향

- BP는 인도네시아의 Tangguh LNG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6개의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\$8억8,400만의 신디케이트 대출을 받음.
 - 대출금융기관은 2개의 유럽은행과 중국 및 일본의 은행 등으로 구성됨.
 - '06년 BP사는 일본국제협력은행, 아시아개발은행 및 국제산업은행으로부터 Tangguh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이미 \$26억의 대출에 합의한 바 있음.



※ BP는 Tangguh LNG 프로젝트에 총 37.16%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, CNOOC가 16.96%, MI Berau BV 16.3%, Nippon Oil Exploration이 12.23%, KG 10%, LNG Japan Corp가 7.35%를 보유하고 있음.

- '09년부터 생산이 개시될 Tangguh LNG 프로젝트의 개발은 80% 정도 진행된 상태이며, 이미 4개 국가와 장기 LNG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.
- 중국의 Fujian LNG에 연간 260만 톤과 한국전력에 60만 톤, POSCO에 550만 톤, 멕시코의 Sempra Energy LNG Marketing Corp.에 360만 톤을 판매할 예정임.

(Thomson Financial, 2007.9.12)

□ 일본, IAEA 통해 원자력산업 수출전략 실행

- 일본 경제산업성(METI) 산하 자원에너지청은 IAEA를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원자력발전도입 지원에 나설 방침임.
- 자원에너지청은 IAEA에 신설되는 '원자력발전도입 기반정비대책 기금'에 약 1억엔을 출자할 방침이며 '08년도 예산에도 포함시킴.
- 자금은 원자력발전의 도입을 검토하는 IAEA 가맹국에 IAEA나 국제적 전문가그룹을 파견하여 핵확산금지과 원자력발전의 안전확보를 위한 IAEA 특별계획에 사용될 것임.
- 일본은 동 지원활동으로 IAEA에서의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 공개적인 형태의 지원을 통해 향후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및 사업을 위한 교두보를 놓겠다는 의도임.
- IAEA가맹국 약 140개국 가운데 이집트와 터키, 요르단, 태국 등이 원자력발전을 신규 도입할 예정임.
- 일본은 이번 IAEA에의 출자와는 별도로 '07년도부터 원자력발전 도입국에 대한 지원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, 카자흐스탄을 지원하고 있음.

(日本電氣新聞, 2007.9.12)



□ 외국 석유기업, '07년 볼리비아에 투자 예정

- 볼리비아 국유화정책 이후, 12개의 석유기업들이 '07년 볼리비아 유전개발에 \$5억8,780만을 투자계획을 발표함.
- 볼리비아 국영석유회사인 YPFB의 '07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총 투자액 중 \$2억5,400만은 유전 개발에 사용되며 나머지 \$3억3,370만은 관리 및 운영 자본으로 편성되어 '07년 11월에서 '08년 사이 유·가스전 및 인프라개발에 사용될 것 이라고 함.
- YPFB와 투자협약을 맺은 12개의 기업 중에는 BP(\$1억4,740만)와 Petrobras(\$1억1,760만), Repsol-YPF(\$9,800만), Pluspetrol(\$9,100만), Petrolera Andina(\$5,796만), BG(\$5,230만), PESA, Total E&P, Vintage Petroleum, Canadian Energy-CEE, Dongwon Corporation, Matpetrol 등이 있음.
- 이밖에도 볼리비아 정부는 \$1억을 인프라개발에 사용할 것을 밝히며 이미 고산지대 가스관 확장을 목표로 하는 Villamontes-Tarija 가스관 프로젝트 1단계에 착수하였고 Margarita-Palos Blancos 송유관 공사를 시작 하였음.

(EFE, 2007.9.10)

EUROPE, MIDDLE EAST & AFRICA

□ 스페인 Iberdrola 투자확대

- 스페인 풍력회사인 Iberdrola는 미국 자회사 PPM Energy를 통하여 미국 Oregon에 위치한 506 MW의 Klamath 발전소를 \$2억9,000만에 매입하였음.
- 현재 Iberdrola는 1,747 MW의 풍력발전소를 보유하며 미국시장 내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음.
- 이밖에도 영국 자회사인 Scottish Power를 통해 스코틀랜드 남부지방에 213 MW의 풍력 발전단지 건설승인을 획득함.



- Moffet 지역에 설립되어 '10년에 운영할 예정인 동 발전단지에는 71개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약 12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것이며 연간 5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다고 함.
- 현재 Iberdrola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총 6,826 MW이며, 이 중 풍력 발전이 6,484 MW, 나머지는 소수력발전으로 구성되어 있음.

(EFE, 2007.9.10), (Europa Press, 2007.9.13)

□ 루마니아, 에너지 부문에 €350억 투자예정

- 루마니아 정부는 '07~'20년 장·단기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총 €350억을 투자할 예정이며, 발전과 송배전을 담당하고 있는 두 개의 공기업을 재편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할 계획임.
- 송배전망 현대화와 신규 발전소 건설에 €170억을 투자할 예정이며, Cernavoda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3~4기에 대한 경쟁 입찰이 금년 10월 말 전에 이루어질 것임.
- 새로운 가스자원 탐사 및 저장설비 건설, 수송망 재정비에 약 €15억을 투자할 것이며 약 €30억은 석유광구 탐사에, 약 €22억은 광산산업에 사용할 예정임.
- 새로 설립될 전력공기업은 체코 CEZ 및 이탈리아 Enel을 모델로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가 지분보유율은 25%~40%가 될 전망이다.
- 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'06년 1월에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분쟁으로 타격을 입은 루마니아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에너지 자립도를 강화시킬 계획임.
- Wintershall과 Gazprom의 합작회사인 WIEE와 루마니아는 '30년까지 루마니아에 가스를 수출하는 계획을 '05년도에 체결하였음.

(Les Echos, 2007.9.11)

□ EU, 에너지 연계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자 선정

- 유럽 집행위원회는 에너지망 연계 프로젝트를 진척시키기 위해 네 명의



공동 책임자를 선정함.

-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'07년 1월에 채택한 '최우선 연계계획' 및 '07년 3월에 채택한 행동계획은 동 프로젝트의 공동책임자 선정을 언급하고 있음.
- 동 책임자들은 본 계획에 대한 전략적 지원 및 규제, 해결책 모색을 위한 범 유럽회의 주최와 계획 및 결과평가, 적합한 실행방법 구상 등의 임무를 4년 동안 수행할 예정임.
- 유럽 집행위원회가 정한 네 개의 최우선 에너지망 연계 프로젝트와 그 책임자는 다음과 같음.
 - 프랑스와 이베리아 반도를 잇는 전력망 연계 프로젝트는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효율적인 역내시장의 형성을 위한 것으로 전 EU위원인 Mario Monti가 책임자로 선정됨.
 - 북해에서 발트 해까지 설치된 해상 풍력 연계 프로젝트는 발트 해 및 북해에서 생산된 해상 풍력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독일 전 장관 Georg Adamowitsch가 선정됨.
 - 유럽의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해 중동 및 카스피 해, 중앙아시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 수송을 위한 나부코 가스관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네덜란드 전 외무부 장관 Jozias van Aartsen이 선정됨.
 - 현 폴란드 Lodz 대학교수인 M. Mielczarski는 독일 및 폴란드, 리투아니아를 잇는 전력망 건설을 책임질 예정임.

(Europétrole, 2007.9.12)



1. 제 145차 OPEC 총회 결과 및 평가

□ 개요

- OPEC 제 145차 정기총회가 9월 11일 비엔나에서 개최되었으며 금년 11월 1일부터 50만 b/d 증산기로 합의함.

□ 세부내용

○ 주요 합의 내용

- 11월1일부터 50만 b/d 증산기로 합의하였으며 앙골라, 이라크는 제외함.
- '08년 의장국 알제리, 앙골라는 교체의장국으로 선정되었으며, 알제리 Chakib Khelil 에너지장관은 의장으로 선출됨.
- 차기 임시총회는 12월 5일 UAE 아부다비에서, 차기 정기총회는 '08년 3월 5일, 비엔나에서 개최됨.

※ 비OPEC 옵서버 참가국은 이집트, 멕시코, 오만, 러시아 4개국

○ 증산합의 사항 분석

- OPEC측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고유가 상황과 세계경제 위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증산을 결정한 것으로 현 수준의 산유량(26.6 백만 b/d)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함.
- OPEC의 증산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가 소비국들의 증산압력에 대한 최소한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됨.
- OPEC의 기본적 시각, 즉 고유가의 근본원인이 원유공급 부족이 아니며 제품공급 능력 부족과 투기 등의 요인 때문이라는 시각에는 변화가 없음.

○ 향후 시장전망

- OPEC의 증산합의에도 불구하고 증산 규모가 소비국들의 증산요구에 대하여 크게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에 유가는 당분간 강세로 유지될 전망이다.
- 석유재고 감소추세 지속, 투기자금의 유입 등과 중동의 지정학적 요인의 추가적 불안감도 변수로 작용됨.



※ 9월 11일, 총회 직후 주요 WTI, Brent, 두바이 등 세계 주요 유종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며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하였음.

- 세계 석유수급 전망과 향후 유가전망
 - 올해 하반기와 '08년 세계 석유수급 전망에 대한 IEA와 OPEC의 시각에 70만 b/d 이상의 차이가 있음.
 - IEA는 올해 하반기와 '08년 세계 석유수요 증가가 전기 대비 2백만 b/d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음.
 - 반면 OPEC은 전기 대비 각각 140만 b/d 내외의 증가로 전망
- 세계 주요기관들의 유가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, '08년까지 유가 강세 상황 유지 예상
 - '07년 4/4분기 : Brent 평균 \$67.50(최고 \$82.80, 최저 \$59.00)
 - '08년 연평균 : Brent 평균 \$65.15(최고 \$78.00, 최저 \$57.00)

□ 시사점

- 이번 OPEC의 증산 결정은 세계 석유수급안정에 부족하지만 소비국의 요구에 따라 OPEC의 변화를 유도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.
- OPEC의 증산합의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당분간 강세로 유지될 전망이며, 재고 감소추이와 선물시장의 변화,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유가에 대비하는 전략이 요구됨.



2. OPEC의 증산결정과 고유가 요인 분석

□ 개요

- OPEC이 9월 정기총회에서 석유생산량을 11월부터 50만 b/d 증산한다고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상승은 지속되어 WTI가격이 처음으로 \$80대를 기록하였음.

□ 세부내용

- OPEC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총회에서 과거 최고수준까지 상승한 유가안정을 위해 11월부터 석유를 증산하기로 결정함.
 - 당초 OPEC은 현재 석유공급량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었는데, 결국 2년 2개월 만에 증산을 결정하여 이라크와 앙골라를 제외한 10개국의 생산량은 2,725만 b/d로 상향 조정됨.
 - OPEC은 11일 총회에서 생산량을 현상 유지시킬 방침이었으나, 이에 대해 IEA가 높은 석유수요 전망치를 제시하며 증산을 요구함.
 - 사우디아라비아가 IEA의 요구를 수용하여 소폭 증산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으며, IEA는 12일에 서브프라임 문제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수요에 촉치를 하향 수정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음.
- 현재 석유시장에 공급불안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보다 중요한 변화는 헤지펀드나 미국의 연금 등 석유나 석유제품의 현물거래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자금이 원유선물시장에 유입되어 투기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임.
 - 최근 유가상승 배경에는 중국 등의 석유수요의 급증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세계 석유생산량은 수요량을 계속 충족시키고 있음.
 - 이번의 최고유가 경신의 주요인이 투기적 자금의 재유입이라는 점에서 현재 석유가격을 좌우하는 것은 세계 석유수급보다는 자금의 동향이라고 할 수 있음.



- 금융시장의 혼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금융당국에게 경기와 물가 양쪽을 고려한 보다 신중한 정책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, 연방준비은행(FRB)의 금융관련 대책이 주목되고 있음.
- 서브프라임 문제를 발단으로 유가상승에 의한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면 투기적 자금이 석유선물시장에 흘러들 것이 우려됨.
- 서브프라임 문제의 영향으로 투기적 자금에 의한 석유선물 매입은 지속적으로 줄었지만, 미국의 저금리 및 달러가치 하락 등으로 8월 말부터는 다시 자금유입이 활발해지고 있음.

□ 시사점

- 투기자금들의 거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투기자금의 동향은 향후 국제유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.
- 고유가와 가격변동성에 대비하여 경제적인 석유수급 달성을 위해 투기자금의 행태의 면밀한 분석과 파생상품을 활용한 헷징 전략이 요구됨.

(日本經濟新聞, 2007.9.14)

3. OECD,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의 문제점 지적

□ 개요

- OECD는 지난 9월 11일, '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회의'에서 수송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바이오연료 사용 열풍을 우려함.
- 바이오연료 개발의 급속한 확대는 다른 식용작물 재배를 줄여 식량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개도국의 삼림을 훼손함.

□ 세부내용



- 총 화석연료 소비량 중에서 바이오연료의 대체율을 '50년까지 현재의 1%에서 11%로 증대한다는 계획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.
- EU는 '10년까지 수송연료의 5.75%를 에탄올 등 바이오연료로 대체하고 '30년에는 25%까지 확대하기 위해 유채 및 피마자 등 각종 식물의 씨앗을 연료로 하는 바이오디젤의 생산량을 향후 10년 동안 2,100만 톤으로 증대할 계획임.
- 이론적으로 바이오매스를 생산할 경작 가능한 토지는 충분하지만, 에너지 생산을 위한 토지로 변경하는 것은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킬 것임.
- 미국의 경우 내년부터 곡물 수확량의 약 30%를 에탄올 생산에 사용할 예정인데, 이로 인해 식량생산은 줄어들고 식품가격은 오르고 있음.
- 경유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40% 감소시키는 방안은 에탄올 및 바이오디젤 생산으로 대지가 산성화되는 결과를 초래해 부정적임.
- OECD의 이번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음.
 - IEA와 OECD, FAO, 세계은행이 현재의 기술과 바이오연료의 생산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함.
 - 보조금을 통해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장려하던 정책을 중단하고 탄소세 부과를 촉구함.
 - 개도국이 바이오연료를 생산 및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가 바이오연료에 대한 관세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함.

□ 시사점

- 환경편익으로 인해 바이오연료의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바이오 연료 사용 확대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(Financial Times, 2007.9.3)



1. Energy Use In the New Millennium - Trends In IEA Countries

□ 개요

- IEA는 9월 에너지소비 형태와 각 부문에 효율을 분석한 보고서 'Energy Use In the New Millennium - Trends In IEA Countries'를 발표하였음.
- IEA 회원국은 '90년 이후의 에너지효율 향상은 80년대의 약 절반수준 이었고, 에너지 소비량은 '90년에서 '04년에 14% 증가함.
- 에너지효율은 '73~'90년에는 연평균 2% 개선되었고, '90~'04년에는 0.9% 개선되었음.

□ 세부내용

- '90~'04년 사이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가장 큰 부문은 서비스와 국내 여객, 화물수송이었고, 제조와 가정 부문이 그 뒤를 이음.
- 제조 부문
 - 제조 부문은 에너지 효율이 가장 크게 개선된 부문이며,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'04년에는 21%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었고, 실질 에너지 사용 증가율은 3%에 불과함.
 - 석탄과 석유사용 대신 천연가스 사용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1% 증가율을 나타냄.
- 가정 부문
 - 가정 부문의 에너지 효율은 11% 개선되었고 에너지 소비는 14% 증가하였음.
 - 가전제품 전력소비는 48% 증가하여 가정 부문 에너지 소비의 증가를 견인하였음.
 - 현재까지 가정 부문 에너지소비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난방수요는 단위당 16% 감소하였음.
 - IEA 회원국 중 가정 부문의 일인당 에너지 사용이 가장 큰 국가는 미



국으로, 가장 낮은 국가 뉴질랜드보다 2.5배 높았음.

○ 서비스 부문

- 에너지 사용의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한 서비스 부문은 '90~'04년 사이 17%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기록하였지만 26%의 에너지 소비 증가를 나타내었음.
-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의 전력소비는 50%까지 증가하였음.

○ 여객수송(Passenger Transport) 부문

- '90~'04년 여객수송문은 매년 0.5%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기록하였지만 에너지 소비는 25% 증가하였음.
- 여객수송 부문 에너지사용의 88%를 자가용부분이 차지하였고, 차량과 엔진기술의 개발로 에너지 효율은 개선되었지만 차량소비 증가로 인한 에너지사용이 증가함.
- 이 부문의 온실가스 증가율은 IEA 회원국마다 편차가 크며, 핀란드와 독일, 영국은 배출량이 줄었고 일본은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임.

○ 화물수송(Freight Transport) 부문

- 화물수송 부문의 에너지 효율은 9% 개선되었고 에너지소비가 24% 증가하였지만 전체적인 에너지 집약도는 감소하였음.
- 기차나 선박보다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트럭은 높은 이용율과 효율개선으로 트럭증가에 따른 에너지 사용 증가효과를 상쇄함.
- 호주와 캐나다는 원자재 생산 산업구조와 긴 수송거리로 인해 GDP 대비 가장 높은 온실가스 배출국을 기록함.

□ 시사점

-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소비 절약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에너지효율은 '90년 연평균 1% 미만의 향상을 기록하였으며, 이는 '80년 대에 비해 낮은 수치임.
- 이는 가정 및 서비스 부문의 전력소비 증가와 수송부문의 연료소비 증



가가 주 요인임.

- 현재의 발전 및 수송연료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단기적인 효율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인 비전에 따라 에너지절약과 함께 효율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이 요구됨.

(IEA, 2007.9)

2. 미국 단기 에너지 수급전망(9월호)

□ 개요

- 미국 에너지부 산하 EIA는 국내외 에너지원별 수급 및 가격 등에 대한 전망을 다룬 단기 에너지 수급전망 보고서를 9월 12일 발표하였음.

□ 세부내용

- 세계 석유수급 전망
 - '07년 2/4분기 석유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20만 b/d 상승하였으며, 하반기에는 180만 b/d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 -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정확한 소비예측이 어려우나, 현 상황으로 볼 때 경기침체로 인해 석유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.

세계 석유수급 전망

(단위: 백만b/d)

구분	2006	2007	2008
수요(A)	84.45	85.72	87.23
OPEC 공급(B)*	35.26	34.82	36.20
비OPEC 공급(C)	49.24	49.82	50.86
공급(B+C)	84.50	84.64	87.06
재고변동**	0.04	-1.07	-0.17

* OPEC 공급은 앙골라 포함, OPEC 12개국 공급량

**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.



- EIA는 OPEC의 4/4분기 생산량 전망을 8월 예측치보다 10만 b/d 낮춰 30.8백만 b/d로 전망함.
- EIA는 OPEC이 '08년을 시작으로 석유생산을 소량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, '08년 석유 생산량을 31.4백만 b/d로 전망하고 있음.
- OPEC이 증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OPEC의 '08년 잉여생산능력은 2배만~3백만 b/d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.
- 대부분의 잉여생산능력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석유시장에 대한 사우디의 영향력은 여전히 클 것으로 예측됨.
- 비OPEC 국가의 석유생산은 '07년에 약 60만 b/d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, 이는 지난 EIA 전망치 보다 약 10만 b/d 감소한 수치임.
- 멕시코의 '07년 석유 생산량이 51,000 b/d로 하향 조정된 것이 주원인임.
- 유가 전망
 - 국제 평균유가는(WTI 기준) '07년과 '08년에 각각 \$66.97/bbl, \$71.17/bbl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 - 세계 석유시장의 타이트한 수급 상황으로 유가 상승 추세는 '0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.
- 미국 석유수급 전망
 - '07년 미국의 석유소비는 전년대비 1.5% 증가한 2,090만 b/d, '08년에는 1.1% 증가하여 2,110만 b/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 - '07년 여름 휘발유 소비는 전년대비 0.8% 증가한 950만 b/d를 기록할 것임.
 - 미국의 '07년 석유생산은 전년보다 0.3% 증가한 520만 b/d가 될 전망임.
 - '07년 말 Atlantis 심해 및 Thunderhorse 플랫폼에서 원유생산이 개시됨에 따라, '08년 원유 생산량은 4.1% 증가하여 540만 b/d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.
- 천연가스 수급 전망
 - '07년 천연가스 소비는 전년대비 4.5% 증가한 6,459억 m³이 될 것으로



전망되는데, 이는 가정 및 상업, 전력 부문의 천연가스 소비 증가로 인한 것임.

- '08년에는 천연가스 소비는 약 6,498억 m³로 약 0.3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- 미국의 총 천연가스 생산량은 '07년에 6,382억 m³, '08년에 6,453억 m³로 각각 0.8%, 1.3% 증가할 전망이다.
- '07년 멕시코 만에서의 천연가스 생산이 4.3%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, Lower-48 육상가스전의 생산량은 증가할 전망이다,
- '07년 LNG 수입량은 전년대비 47% 증가한 243.5억 m³이 될 것이며, '08년에는 19%만큼 소폭 증가하여 288.8억 m³를 기록할 전망이다.
- '07년 상반기 LNG 수입증가는 미국의 상반기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이며, 하반기에는 세계 LNG 수요 증가로 미국의 LNG 수입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.
- '07년 8월 Henry Hub 평균 현물가격은 \$5.76/MMBtu인데 반해, 겨울 수요 급증으로 인해 '08년 1월경 Henry Hub 현물가격은 \$8.15/MMBtu가 될 전망이다.
- '07년 및 '08년 Henry Hub 평균 현물가격은 각각 \$6.61/MMBtu, \$7.30/MMBtu가 될 것으로 예측됨.

○ 전력 수급 전망

- '07년 총 전력소비량은 전년대비 2.5% 증가하여 3,914 TWh, '08년에는 1.4% 상승한 3,957 TWh를 기록할 전망이다.
- 미국 남동부 및 중서부 지역의 기온상승으로 '07년 3/4분기 미국의 총 전력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.6% 증가한 1,108 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- 가정용 전력가격은 '07년에 2.5%상승하여 ¢10.66/kWh, '08년에는 2% 상승한 ¢10.88/kWh가 될 것으로 예측됨.

○ 석탄수급 전망

- '07년 전력수요의 증가로 석탄수요는 1.7% 증가한 11.30억 톤으로 예측



되며, 이 증가율은 지난 EIA 전망치보다 0.9% 포인트 상승한 것임.

- '08년 석탄 수요는 '07년과 같은 수준인 10.31억 톤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.
- '07년 석탄생산은 전년대비 2.5% 감소한 약 11.38억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, 미국의 총 석탄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부지역 생산량은 '07년에 2.3%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시사점

- EIA는 8월 전망에서 OPEC의 생산량을 낮게 전망하였는데, 9월 전망에서도 OPEC의 4/4분기 생산량을 지난달보다도 10만 b/d 낮춰 전망하였고 '08년을 기점으로 OPEC의 생산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.
 - ※ EIA는 OPEC이 '07년에는 증산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해 왔으나, OPEC은 9월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11월부터 50만 b/d 증산하기로 결정하였음.
- '07년 3/4분기 천연가스(Henry Hub) 현물가격은 \$5.78/MMBtu로, 2/4분기의 \$7.02/MMBtu 보다 \$1.24/MMBtu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.
- 동절기에는 난방수요의 급증으로 '08년 1월경에는 \$8.15/MMBtu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.

(EIA, 2007.9)